

조계종 조의국사 다례재 봉행

6월 6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 조종(宗祖) 조의국사의 기일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다례재가 봉행된다.

조계종은 오는 6월 6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 조의국사 다례재를 거행한다. 조의국사는 육종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서당 지장 스님에게 사사해 남종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한 스님이다.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산하고 선법을 크게 펼쳤다. 특히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까지 당시 주류인 화엄사상서 선사상으로

사상의 흐름을 바꾸었다. 조계종은 지난 1962년 3월 22일 불교재건비상종회가 조의국사를 조계종조로 종헌 전문에 명시한 이래 조계종조로 추앙하고 있다. 다례재는 2004년 종단차원으로 최초로 봉행한 이후 매년 음력 5월 2일 진행되고 있다.

다례재는 육법공양,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행장소개, 추모사, 청법계, 법어, 종사영반, 헌화,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로 명칭변경

선원수좌복지회, 명칭 혼란에 정기이사회의 결의

조계종 선원 수좌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출범한 선원수좌복지회가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다.

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2012년 1월 16일 출범 이후 올해 5월 9일까지 총215건, 3억 83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법인 사무처는 “이에 비해 간화선 수행풍토 확산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그동안 법인 설립 초부터 모기업인

‘전국선원수좌회’와 명칭이 비슷해 혼동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3월 열린 10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여러차례 논의하여 결의했다. 이후 설립 취지를 명칭에 밝히기로 해 변경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인 사무처는 이어 “법인 명칭 변경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간화선 수행환경 조성 및 청정한 수행문화 확산 및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922-9967 노덕현 기자

“생명경시 기업풍조, 인류·생태 파괴할 것”

조계종 환경위원회, 5월 25일 ‘생명존중 성명서’ 발표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환경과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사회 기업윤리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 논란된 가슴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이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던 지적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5월 25일 발표한 ‘생명존중을 위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명 및 환경보호 의식 회복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신임 위원장 수암 스님을 임명하고 7기 환경위원단을 새롭게 꾸린 후 공식적인 첫 행동이다.

환경위는 “가슴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키고 이윤만 추구, 환경과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며 “기업은 기업윤리를 회복해 운영해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수암 스님은 “독성물질을 무지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해치는 기본 생존권 문제일 뿐 아니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불매운동 등으로 해당 사건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 해결을 위해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10년, 아니 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암 스님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인류생존에 가장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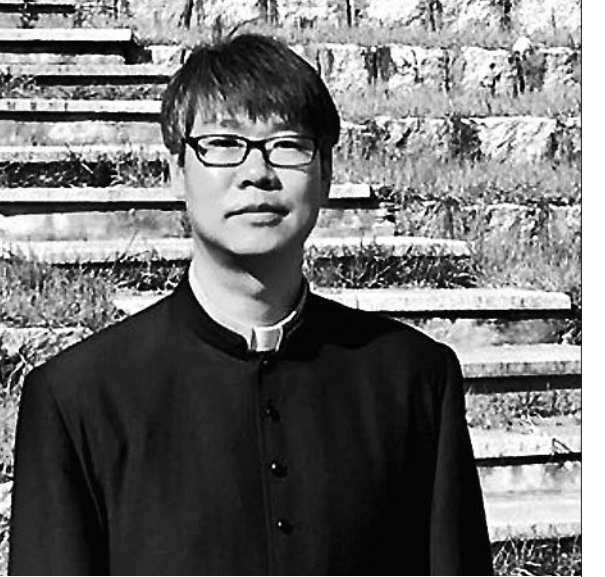
그러면서 “불교계도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찰 내 난방 절약 및 신도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도 모르게 일삼아 온 환경과 괴행을 각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환경위는 7월 1일 서울 진관사에서 워크숍을 열고, 7기 환경위의 중점사업 및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의 ‘보살’ 가톨릭 ‘자비’와 ‘일맥상통’

[특별인터뷰] 가톨릭 주보에 ‘불교 자비사상’ 연재한 최동석 신부



가톨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를 ‘자비의 특별해’로 선포했다. 이에 가톨릭 인천교구(교구장 최기산 주교)는 지난 2월 28일부터 5월 17까지 불교의 자비 사상을 짚어보는 글을 10회에 걸쳐 주보에 실었다. 가톨릭 주보는 가톨릭 신자들이 교리와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하는 매체로 교구별로 일괄제작하기에 교단내 파급효과가 크다.

이 주보에 글을 기고한 이는 최동석 신부로 최 신부는 대구가톨릭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 신부에게 불교와 가톨릭의 만남에 대해 들어보았다.

“초기불교에서 ‘자(慈)와 비(悲)는 별개였습니다. 친구, 진실한 우정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자’는 ‘동료, 친구에게 안락과 이익을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불쌍히 여김, 슬픔 등을 의미하는 ‘비’는 ‘동료, 친구의 고통과 불이익을 제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최 신부는 “이런 자비를 실천하는 이가 바로 보살이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은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부처됨을 보류한 채 ‘이타행’을 실천하는 이”라며 “이런 이타행은 모든 종교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는 우리나라의 역사 최 신부는 불교는 이웃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불교교리와 별개로 수많은 불교의 역사 속에서의 대중들의 애환과 기쁨 등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더욱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 속에 녹아 있는 자비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 종교가 이해와 대화, 그리고 협력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종교 갈등 방지 뿐만 아니라 실업, 계층 소외 등 시대의 이픔을 보듬는데 종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 신부는 “가톨릭은 2차 바티칸 공회 문헌을 통해 다른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각자가 가진 ‘우리 것만 유일하다’는 벽을 만들면 고립된다. 우리 것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지평을 넓혀 다른 종교에 대한 우호관, 종교관, 전통의례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톨릭에서 ‘자비의 희년’을 포함해 자비로운 하느님 등 자비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그 근간의 정신에서는 같다고 답했다.

“가톨릭에서 ‘자비’는 라틴어 ‘Misericordia’의 번역입니다. 불교에서도 처음에는 ‘자’, ‘비’가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번역하고 한

베이징대서 ‘불교철학’ 전공

스님과 스터디, 박사 취득

가톨릭대서 후학양성 매진

가톨릭 ‘자비 희년’ 기획연재

종교 실천에 ‘보살정신’ 강조

“근본 정신에서는 같은 의미”

“불교역사가 한국역사” 평가

두 종교 수행전통 논하길 기대

인정·배움통한 종교발전 역설

국불교가 받아들이며 ‘자비’가 한 개념으로 굳어졌지요. 용어에 대한 각 종교의 교리적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교학적으로 맞고 다르지 따지기 보다 그 근간의 의미를 살피는데 중요하지 않을까요?”

“종교의 굴곡, 서로 배우자”

그런 의미에서 최 신부는 불교계에서도 가톨릭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신부는 이러한 과정을 ‘서로를 배우는’이라고 표현했다.

“제가 거주하는 경산에는 팔공산이 있고, 사찰이 200여 개가 됩니다. 부처

님오신날에도 암자를 방문하고 수행하면서 불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편견없이, 격의없이 사는 것이지요.”

수행에 대해서도 불교와 가톨릭의 교학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을 대화하고 함께 살피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불교는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합니다. 가톨릭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가톨릭은 성령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과 일치하지만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수행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발전했어요. 교학을 전공해 수행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가톨릭도 교부시대부터의 수행전통이 깊고 넓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대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신부는 앞으로 <능가경>을 심화 연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날 자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에서도 불교에 대해 가르치며 틈틈이 공부한 내용을 가다듬고 싶다는 최 신부의 말 속에 종교인의 열린 모습이 엿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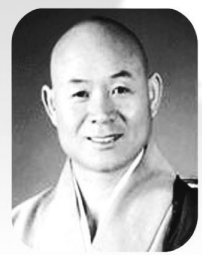
한편, 가톨릭에서는 2004년 파리대학에서 성철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명원 신부, 2005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광상훈 신부 등 불교공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불교계에서 이웃종교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은 극소수다. 미국 템플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는 많지 않다. 이는 불교사상이 최고라는 아집 때문”이라며 “불교가 더 넓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학 또한 이해하고,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신부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